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안전한 분위기 조성

92년 유도실업(주)과 일본 STAR SEIKI가 합작으로 시작한 유도스타자동화(주) (이하 유도스타)는 취출로봇, 공장 자동화, 합리화시스템, 정밀제어 등 플라스틱산업의 자동화부문에서 국내 최고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기업이다. Global Leader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적극적인 해외부분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도 세계 중심을 향할 태세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천지회 김성용대리는 세계 속의 유도스타자동화, 안전 중심의 유도스타자동화를 위해 파트너로 오늘도 현장 구성구석을 누빈다.

머리말

1980년 유영희 회장이 창업한 유도실업(주)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계열사를 통해 플라스틱 산업의 토탈 솔루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92년 일본 STAR SEIKI와 합작기업인 유도스타자동화(주)가 탄생한다.

대지 2,997평, 건평 2,459평의 유도스타는 플라스틱의 사출공정의 토탈솔루션 부분, 국내 점유율 60~70%를 차지할 만큼 이들의 자리는 확고하다.

집중 관리되고 있는 위험요인

주문 생산을 하는 업무 특성 때문인지 대부분의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설계, 부품가공, 조립, 검사를 거쳐 출하하는 공정으로 부품가공을 제외한 모든 공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어진다.

공정에서는 특별히 위험한 공정은 없으나 중량물 취급을 위해 설치된 호이스트에 근로자나 제3자가 인양 물체에 충돌할 위험이 있고, 적절하지 않은 수공구 사용으로 사소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검사공정에서는 기계 테스트를 위해 기계 가동시 기계 운동반경 내에 작업자나 제3자가 출입 및 이동함으로써 테스트 기계에 접촉되어 다칠 위험과 기계 가동시 가드를 해제하여 추락할 위험 등이 이곳에서 관리되고 있는 위험요인들이다.

유도스타와 위험요인의 차단

확 트인 작업 공간, 명확한 이동통로 구획, 그 속에서 편안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

이 것이 유도스타의 작업 모습이다.



경영진이 특별히 강조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 깨끗한 정리정돈이 사업장에 그대로 스며든 모습입니다.

철저한 정리·정돈이라는 확고한 경영진의 의지 말고도 이곳에는 또 다른 비결이 있다.

팀장급 이상 관리감독자가 주 1회 사무동을 제외한 모든 현장을 점검하는 “QC 패트롤”이 그 것이다.

품질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도출하고 신속한 개선으로 안전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최상의 안전한 조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현재 월 1회 주기로 변경된 ‘QC패트롤’은 그동안의 주 1회 활동으로 안전의 기틀이 잡힌 조치이다.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들로부터 유도스타자동차(주)의 근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무재해의 동반자 KISA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안전공조 체제의 인연을 맺은 것은 1995년부터이다.

처음 낯선 사람을 경계 하듯 무관심 속에 대했던 현장 사람들...

지금은 유도스타의 안전업무를 하는 사람임을 인지하고 마음을 연지 오래다.

현장 곳곳에서 안전협회 인천지회 김성용대리와 안전에 관해 이야기가 오가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다.

“점차 저도 유도스타의 직원이 되어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일까, 김성용 대리가 지적하는 사항은 현장 사람들은 바로 수긍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오늘도 김성용 대리는 “유도스타가 특별한 위험 요소는 없으나 안전에 있어 완벽한 사업장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이곳에 맞는 안전을 찾으려 자로 실과 동종업체의 벤치마킹이 한창이다.

무재해 유도스타를 위해

세계로 그 영역을 뻗어 가고 있는 유도스타의 안전도 세계 중심으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지금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고의 안전한 제품 생산을 이미 평가된 상태이다.

그러나 세계 속의 유도스타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서는 이곳 가족들의 안전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혁을 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보다 인간공학적인 작업공정,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조립라인,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수공구 보급을 통해 일할 맛 나는 기업, 안전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천지회와 유도스타가 손을 굳게 맞잡는다. 

〈최종덕 기자〉

타성은 안전사고로 이어져

우리가 대화중에 “옛날에는”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타성에 젖은 대표적인 말이지요.

타성 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다 보면 새로운 것을 싫어하고 위험한 현 작업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타성에 젖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성을 버리기 위해서는 각자의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은 직원들 앞에서 안전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산재로 사망해서 보험금이 나온들 죽은 사람은 좋아하는 술 한잔 못먹고, 흔히 먹는 짜장면 한그릇 못먹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자녀는 항상 명애를 안고 살아가는 제2의 희생자가 됩니다.” 라는 말에 많은 직원들이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지만, 사소하게 다쳤을 경우에도 회사는 치료를 위해 도움을 줄 뿐 그 사고로 작은 장애라도 남게 되면 그 근로자는 평생 안고 가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의 적인 타성은 우리 주위에서는 없어야 할 것이며, 이를 버리기 위해 각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깨끗하게, 더 안전하게, 일로 인해 몸살감기가 걸리지 않을 만큼 쾌적한 환경으로 안전한 유도스타를 이어갈 것입니다.



▲ 손창수 이사